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정약용의 삼국영토인식 연구

- 『아방강역고』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강 남 옥

2012년 2월



정약용의 삼국영토인식 연구

- 『아방강역고』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전

강 남 옥

이 논문을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강남옥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목 차

I. 서론	1
II. 『아방강역고』의 내용	3
III. 고구려 영토에 대한 인식	11
1. 고구려 영토인식	11
2. 고구려 영토인식의 문제점	17
IV. 백제·신라 영토에 대한 인식	27
1. 백제 영토인식	27
2. 신라 영토인식	30
3. 백제·신라 영토인식의 문제점	32
V. 맺음말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7



표 목 차

〈표〉 『아방강역고』의 목차.....	3
----------------------	---

도 판 목 차

〈도판 1〉 고구려도.....	16
〈도판 2〉 백제도.....	28
〈도판 3〉 신라도.....	31

I. 서론

영토¹⁾는 국가를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곳으로써, 국가 구성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영토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들에도 영토의 중요성은 크지만 농업이 주요 경제수단이었던 고대 국가에 있어서 영토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고대 국가들이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토를 둘러싼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영토의 확장은 곧 국가의 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의 각축에 따른 영토의 변천을 고찰하는 일은 삼국의 역사를 파악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고대 삼국의 영토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조선시대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고대 삼국 영토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 명조(明朝) 멸망과 청조(淸朝)의 중국 지배에 따른 소중화 의식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의 대두,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청대(淸代) 고증학의 영향으로 인한 역사지리학의 발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중국사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로의 탐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는데, 본고에서 논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이다. 그는 고대사의 영토를 고찰한 저서를 후세에 남기에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이다.²⁾ 『아방강역고』는 우리나라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었던 고대 국가들의 영토를 문헌 자료들에 의거하여 고찰한 역사지리서이다. 고대 삼국의 영토에 대한 고찰 역시 『아방강역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방강역고』에 대한 연구는 강석민, 박시형, 이명아, 조성을, 조이옥, 한영우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³⁾ 이는 대체적으로 『아방강역고』가 갖는 역사지리서

1) 영토(領土)라는 용어는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을 지칭한다. 이는 강역(疆域), 영역(領域)이라는 말로도 대체(代替)할 수 있지만, 강역은 ‘국가의 테두리, 경계’를 말하며, 영역은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 바다,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말하는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복잡성을 배제하기 위해 영토와 강역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려 한다.

2) 정약용(丁若鏞)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는 필사본(1811)과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본이 있다. 현재 필사본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다.

3) 『아방강역고』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韓永愚, 1985,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 韓永愚, 1989, 「19세기 초 丁若鏞의 歷史觀과 對

로써의 성격과 내용, 찬술 동기, 찬술 목적에 따른 정약용의 역사인식에 대한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아방강역고』가 철저한 문헌사료의 참고를 통해서보다 사실에 가까운 영토 역사를 고찰해 나갔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방강역고』의 영토 고찰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실한 실정이다.

『아방강역고』는 분명히 철저한 고증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의 영토 역사를 재현해낸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본고에서 『아방강역고』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정약용의 삼국 영토 인식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고대 삼국의 영토 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아방강역고』와 같은 역사지리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방강역고』 관련 연구 성과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아방강역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이 주로 『아방강역고』의 내용, 특성, 역사인식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하여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삼국 영토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해 내기 위해 다른 실학자들의 견해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아방강역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아방강역고』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III장, IV장에서는 본고의 문제와 관련된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토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실학자들의 삼국 영토 인식과 비교·고찰하였다. 그리고 비교 과정에서 추출된 『아방강역고』의 삼국 영토 인식 내용상의 문제점을 고구려 영토인식과 백제·신라 영토인식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外觀」, 박시형, 1989, 「다산 정약용의 역사관」, 趙誠乙, 1992,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李明兒, 1996, 「丁若鏞의 我邦疆域考」 등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의 역사인식과 내용, 찬술동기, 사학사적 위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趙二玉, 2002, 「茶山 丁若鏞의 渤海史認識」, 조성을, 2009, 「정약용의 백제사 연구」 등은 『아방강역고』의 발해와 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측면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조성을, 2008,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의 문헌학적 검토」는 『아방강역고』의 문헌학적 검토 측면에 대해서 연구되어졌다. 姜錫珉, 2006, 「18世紀 朝鮮의 領土論 研究」는 『아방강역고』의 찬술 목적에 따라서 고대사 영토를 바라보는 정약용 개인적 성향측면을 단편적으로 연구하였다.

II. 『아방강역고』의 내용

『아방강역고』는 1811년 정약용에 의해서 저술되었다. 『아방강역고』는 고대 국가들의 영토의 위치를 중국과 우리나라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한반도와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중국 대륙에서 찾아내려는 데 목적을 둔 역사지리서이다. 『아방강역고』는 현재 3가지 종류로 남아 있다. 우선 1811년에 완성한 초고 필사본⁴⁾이 있으며, 다음으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아방강역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1903년 장지연이 『아방강역고』를 수정·보완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초고 필사본(1811)을 중심으로 해서 『아방강역고』의 목차를 살펴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아방강역고』의 목차

권 호	목 차
1권	조선고(朝鮮考), 사군총고(四郡總考), 낙랑고(樂浪考), 현도고(玄菟考)
2권	임둔고(臨屯考), 진번고(眞番考), 낙랑별고(樂浪別考), 대방고(帶方考)
3권	삼한총고(三韓總考), 마한고(馬韓考), 진한고(辰韓考), 변진고(弁辰考)
4권	변진별고(弁辰別考), 옥저고(沃沮考)
5권	예맥고(濊貊考), 예맥별고(濊貊別考), 말갈고(靺鞨考)
6권	발해고(渤海考)
7권	여진고(女眞考), 거란고(契丹考), 몽고고(蒙古考)
8권	졸본고(卒本考), 국내고(國內考), 환도고(丸都考), 위례고(慰禮考)
9권	한성고(漢城考), 팔도연혁총서상(八道沿革總書上)
10권	팔도연혁총서하(八道沿革總書下), 패수변(溟水辯), 백산보(白山譜)

이는 『여유당전서』본의 『아방강역고』 목차의 순서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⁵⁾,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 다만 장지연의 『대한강역고』에서는 임나고와 백두산정계 비교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아방강역고』의 10권 중에서 유일하게 7권의 「여진고」, 「거란고」, 「몽고고」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전해지지 않

4)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중이다.

5) 『여유당전서』본에서는 1권에 조선고, 사군총고, 낙랑고, 현도고, 임둔고, 진번고, 낙랑별고, 대방고, 삼한총고, 마한고, 진한고, 변진고, 2권에는 변진별고, 옥저고, 예맥고, 예맥별고, 말갈고, 발해고, 3권에는 졸본고, 국내고, 환도고, 위례고, 한성고, 팔도연혁총서(상), 팔도연혁총서(하), 패수변, 백산보, 4권에는 발해속고와 북로연혁속고(北路沿革續考), 서북로연혁속고(西北路沿革續考)가 수록되어 있다. 이 모두 정약용이 직접 저술한 목록들이다.

고 있다. 각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방강역고』의 고대 국가의 영토 인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

(1) 「조선고」

1권의 「조선고」에서는 단군조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기자조선은 우리나라 평안남도 평양에서 국가가 시작되었다면서, 국가의 초기 시대에는 대동강 유역에서 개국하여 영토가 크지 못했으나, 그 후에는 영토를 점차 넓혀나가서 서쪽으로 요하유역까지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2) 「사군총고」

「사군총고」에서는 사군(四郡-낙랑, 현도, 진번, 임둔)이라는 것은 위만조선의 영토에서 나뉜 것으로써, 낙랑, 현도, 임둔은 우리나라 평안도와 함경도 부근에 위치했으며, 진번만이 압록강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다면서 사군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확정짓고 있다.

(3) 「낙랑고」

「사군총고」에서 한사군의 전체적인 위치를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부록으로 사군의 각 위치에 대한 상세한 위치를 고찰하고 있다. 「낙랑고」에서 낙랑은 우리나라 평안도와 황해도에 걸쳐 존재했으며, 후한 시절에 요동태수 공손도(公孫度)에 의해서 대방이 낙랑으로부터 새롭게 파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낙랑은 초기에 중국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인으로 우두머리를 삼게 되었으며 낙랑은 요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안평의 위치를 우리나라 평안북도 의주부근의 압록강 너머 서북쪽으로 비정하면서, 중국과 낙랑이 서안평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연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현도고」

「현도고」에서는 3개의 현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첫 번째 현도는 함경남도 지역

에 위치해 있었으며, 기원전 2세기에 한나라 무제가 처음 설치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현도는 기원전 1세기경에 중국 한나라에서 현도를 북쪽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시초로써 중국 요녕성 신빈(흥경) 서북쪽 100리 지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현도는 서개마(西蓋馬)라고 불리며, 지금의 중국 동가강(冬佳江) 유역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5) 「임둔고」

2권이 시작되는 「임둔고」에서는 열수(한강)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 서쪽 대수하류 유역이 임둔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 학자들⁶⁾이 강릉지역을 임둔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수(帶水)는 옛 칠중하(七重河)이며, 지금의 경기도 임진강이라고 했다.

(6) 「진번고」

「진번고」에서는 그 진위를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대략 지금의 요녕성 신빈(흥경) 남쪽 동가강 유역에 걸쳐있었다고 하면서 기존의 함경도 이복설(設)을 비판하였다.

(7) 「낙랑별고」

정약용은 한사군 중에서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낙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낙랑별고」를 통해서 낙랑의 위치와 역사를 보충했다. 「낙랑별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중국 한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평안남도 평양에서 다스리다가 시간이 흘러 현지인의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현지의 우두머리가 추대되어 다스리게 되었고, 이들이 강원도의 우두주(춘천)를 점령하여 이곳에 맥국(貊國)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 후 현지인이 다스리게 된 낙랑은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침공했으며, 33년 고구려 대무신왕의 공격을 받아 항복했는데, 이 시기의 낙랑은 평양이 아닌 강원도 춘천의 낙랑이었다. 44년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살수(청천강)까지 이르게 되자, 중국 후한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서 살수 남쪽을 점령하여 다시 낙랑군을 삼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확고하게 낙랑의 영토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6)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한 문인들과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을 저술한 조선 중기의 문인 홍만중(洪萬宗 : 1643~1725)을 말한다.

낙랑은 본래 평양에서 일어났으며, 현지 지배자로 인해 춘천까지 그 세력을 넓혔다. 그러나 33년에서 44년에 해당되는 10여 년 동안 고구려 대무신왕의 침략을 받아 평안남도 평양과 춘천의 낙랑일대가 잠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으나 후한 광무제의 재차 침공으로 다시 중국의 한군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약용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동천왕 21년의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았다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낙랑이 247년에 다시 고구려의 침략으로 평양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254년에 다시 중국의 관할이 되었고 300년에 남쪽 신라에 의해서 복속되었다고 하였다. 304년에는 백제와 대립을 했었고 9년 후인 313년에 마침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여 낙랑의 역사를 연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후한 요동태수 공손도에 의해서 낙랑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중국 대방에 대해서는 「대방고」를 통해서 그 위치는 지금의 대수(임진강) 하류 유역이었다. 그리고 238년에 공손씨가 멸망한 후, 중국 위나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300년에 낙랑과 함께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314년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8) 「삼한총고」

정약용은 「삼한총고」를 수록하여 삼한지역의 전체적인 위치의 맥락을 확정짓고 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의 「삼한총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영토역사를 열수(한강)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열수 북쪽은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고구려(낙랑, 대방, 옥저, 예맥 포함)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으며, 열수 남쪽은 삼한→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원적(二元的)인 역사 체계를 영토역사 고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우선 마한은 54개의 소국가로 이루어진 연맹체이며, 한반도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땅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금의 경상도 지방에 있었던 진한과 그 남쪽에 있었던 변진이 존재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마한, 진한, 변진이 곧 역사상에서 말하는 삼한을 말하며,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비옥한 지역에 위치한 마한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삼한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9) 「마한고」

「마한고」에서는 54개의 군소국가(群小國家)들의 연맹으로 이루어진 마한의 맹주(盟主)가 위치한 곳은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이며, 이곳이 곧 국도(國都)였다고 하였다. 기원전 12년에 마한에 소속된 소국가였던 백제가 북쪽으로는 패하, 남쪽으로는 웅천(금강), 서쪽으로는 지금의 황해, 동쪽으로는 주양(走壤-춘천)을 영토로 확장하여 마한에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백제가 이때 지금의 대동강 지류였던 패하로 북쪽 강역을 삼았지만, 후한 광무제에 의해서 빼앗겨 패하일대는 한나라의 낙랑 군현이 되었다고 하였다. 6년에 백제 온조왕이 웅천(금강)에 목책(木柵)을 세워 웅천일대를 완전한 백제의 영토로 만들려 하자, 마한왕(王)이 반발하였으므로, 백제가 복종하여 목책을 헐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백제는 당시 마한의 확실한 종속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8년 10월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한 사실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듬해인 9년에 백제 온조왕에 의해서 마한의 전 지역인 전라도, 충청도가 모두 백제의 영토로 병합되었다고 하였다.

(10) 「진한고」

「진한고」를 통해서 진한은 중국 진(秦)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세운 연맹국가였다는 것을 첫머리에 언급하면서, 진한의 6부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해 있었고,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마한의 맹주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듯이, 진한의 맹주는 박혁거세가 되어서 경주를 국도로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맹주였다고 해도, ‘신라(新羅)’라는 국명(國名)도 없었고, ‘왕호(王號)’도 칭하지 못하고 단지 군소 연맹 국가의 장(長)이었을 뿐, 국명과 왕의 칭호는 후세인 6세기 초의 지증왕 때 가서 쓴 사실로써 보충하고 있다. 그야말로 진한은 국력이 약했으며, 실제 6세기 초인 지증왕 때까지 진한이라는 국명을 계속 써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11) 「변진고」

「변진고」에서는 삼한의 마지막 연맹국가인 변진은 경상남도 김해, 고성, 거제, 함안 땅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야가 이 변진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밝혀두고 있다.

정약용은 「변진고」에서는 변진의 위치고증에 대한 설명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변진별고」를 따로 두어 변진과 관련이 깊은 국가인 가야의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영토역사를 연대별로 소개하였다. 가야는 총 6개의 국가로 나누는데 금관가야는 경상남도 김해이며, 아라가야는 경남 함안, 소가야는 경남 고성, 이들은 모두 황수(黃水-낙동강) 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황수 북쪽의 경상북도 고령에는 대가야가, 경북 성주에 벽진가야, 경북 상주부근의 함창에는 고령가야가 있었다. 이들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운업에 능통하였으며 비교적 내륙에 위치한 진한(신라)에 비해서 선진국(先進國)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변진별고」를 통해서 정약용은 신라가 6세기 초까지에도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단지 군장(郡長)의 칭호라 할 수 있는 이사금, 마립간을 사용했으며, 문자도 사용하지 않았던 후진국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게 항복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진한과 변진 지역은 신라에게 통합되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정약용은 삼한의 영토역사 고증을 「변진별고」를 마지막으로 하여 결론짓고 있다.

(12) 「옥저고」

정약용의 영토역사 고증의 무대는 4권 「옥저고」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한반도 서북부, 동북부,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옥저고」에서 옥저에는 북옥저와 남옥저(동옥저)가 있었는데, 남옥저는 낙랑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옥저라고도 불렸으며, 이곳은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옥저는 함경북도 경원과 경흥 지역이다. 북옥저 지역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르러 고구려와 부여의 영토로 복속되었고, 남옥저 지역인 함경남도의 철령(함경남도 안변 남쪽)일대는 300년부터 5세기 초에 걸쳐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⁷⁾을 근거로 하고 있다.

(13) 「예맥고」

5권 「예맥고」에서는 ‘예맥’이라는 종족은 원래 북적(北狄)에 해당되며, 우리나라⁸⁾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엄연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분리하려는 사고와 연

7)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림 이사금 3년 기사(『三國史記』 卷 第二 「新羅本紀」 第二 基臨尼師今 三年 春二月, 巡幸比列忽(중략) 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帶方兩國歸服)와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 마립간 3년 기사(『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麻立干 三年 春二月 幸比列城)이다.

관된 듯하다. 예맥은 원래 북부여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의 중국 요녕성 개원에 위치해 있었는데 중국 전한 때에 북부여 왕 해부루가 가섭원(迦葉原)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의 강원도 강릉으로 옮겼음을 고증해내고 있다. 즉, 가섭원이 곧 강릉이라는 것이다. 이 후에 이 강릉지역은 북부여가 아닌 예맥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서 낙랑과 변진, 예맥에 「별고」 즉 부록을 첨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을 하고 있다. 이는 정약용 개인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나라에 대한 사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서 이를 확실하게 고증하여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영토 역사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4) 「말갈고」

「말갈고」에서는 『삼국사기』를 통해서 예맥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갈의 명칭은 거짓이며, 이는 5세기 북위 시대 말년에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정약용은 이들의 정체를 옥저라고 보고 이들이 함경남도 함흥과 강원도 강릉을 그 근거지로 하여 자주 남하하여 백제와 신라에 침공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5) 「발해고」

6권 「발해고」에서는 발해의 영토가 우리나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땅까지였다고 소개하면서 발해의 영토⁹⁾를 고증해냈다. 「발해고」에 의하면 발해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북쪽의 봉황성 부근까지가 한계선이어서 요동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남쪽은 함경남도 함흥 부근까지 미치게 되었고, 발해의 수도인 상경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 영고탑 부근이라고 고증하였다. 한편 『아방강역고』의 7권은 전해지지 않지만, 발해가 멸망한 후에, 북방 영토를 지배했던 거란, 여진, 몽고에 대한 역사를 서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8권과 9권에 걸쳐서 고구려의 영토이자 국도였던 졸본, 국내, 환도, 안시의 위치

8)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쪽의 오랑캐인 동이(東夷)라고 불렸다. 따라서 정약용은 예맥을 북쪽의 오랑캐라는 뜻의 북적(北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별개로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9) 영토는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강역 즉 테두리를 뜻하며, 국도는 영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엄밀하게 국도는 영토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도를 영토의 부분적 의미로 보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와 백제의 영토이자 국도였던 위례, 한성의 위치를 고증해 내고 있다. 「팔도연혁총서」는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 팔도지리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16) 「패수변」

10권의 「패수변」에서는 패수(溟水)라는 강에 대한 고증을 하고 있는데, 역사상 네 곳의 패수가 존재했다고 하여, 첫째 압록강, 둘째 평안남도 평양 부근의 대동강, 셋째 요하 동쪽에 위치한 강, 넷째는 우리나라 황해도 평산 저탄(예성강 부근)이라고 밝혀두었다. 또한 기원전 12년에 백제 온조왕이 백제의 초기 북쪽 영토 경계로 획정(劃定)지은 패하(溟河)는 지금의 대동강의 지류(支流)인 능성강(能成江)으로 비정(比定)했다. 한편 「백산보」에서의 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으로 고증하였다.

Ⅲ . 고구려 영토에 대한 인식

1. 고구려 영토인식

『아방강역고』에서 고구려 영토에 대하여 고증 한 부분은 8권에 해당되는 「졸본고」, 「국내고」, 「환도고」이며, 백제 영토에 대한 고증 부분은 8권의 「위례고」와 9권의 「한성고」이다. 즉, 고구려와 백제 초기 국도를 중심으로 고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약용이 『아방강역고』를 저술한 목적은 고대 삼국의 영토를 고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삼국에 비해서 관련 기록이 적은 조선, 낙랑, 가야, 옥저, 예맥, 발해 등에 대한 상세한 고증을 통해서 삼국을 제외한 고대 제국(諸國)들의 역사를 보충 설명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신라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고증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영토 고증도 8권과 9권을 통해서 주로 국도 위주로 고증하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의 국도와 백제 국도 고증도 두 나라의 초기 국도 중심으로 고찰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¹⁰⁾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초기 국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려는 정약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아방강역고』는 보충적(補充的)인 성향이 강한 역사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고대 삼국의 영토에 대한 고증에 소홀한 부분이 많은 『아방강역고』의 내용 체제이지만, 정약용의 삼국 영토 인식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방강역고』에 엄밀히 존재하고 있다. 우선 고구려 영토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은 「사군총고」, 「낙랑고」, 「현도고」, 「낙랑별고」, 「대방고」, 「옥저고」, 「예맥고」 등이며, 백제 영토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낙랑별고」와 「대방고」, 「마한고」, 「변진별고」, 등에서 알 수 있다. 신라에 대한 영토 인식 부분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실한 편이지만, 그나마 고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낙랑별고」, 「진한고」, 「변진별

10) 고구려의 첫 국도인 졸본과 국내, 환도는 현재 졸본은 길림성 환인 오녀산성, 국내는 길림성 집안시, 환도는 길림성 집안시의 환도산성으로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으나 정약용 시대 당시에는 그 위치에 대한 뚜렷한 고증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었다. 고구려의 초기 국도에 비해서 백제 국도인 위례성과 한성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 위례성을 서울의 몽촌토성이라고 보는 설이 있고, 경기도 광주로 보는 설도 있으며, 충남 직산으로 보는 설이 있지만 현재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방강역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국의 영토 변천 시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6세기경까지이다.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는 국도별로 고증을 한 부분이 8권과 9권에 존재하며, 기타 고대 제국(諸國) 고증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확장사(擴張史)를 설명하고 있으나 신라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방강역고』에 의한 고대 삼국의 역사 인식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구려는 한사군의 하나였던 현도군이 지금의 중국 요녕성 신빈(흥경) 부근에 존재했을 때 생긴 나라이다. 주몽이 요녕성 신빈 부근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뒤, 2대 유리왕 때 이르러 지금의 평안북도 초산 북쪽 압록강 너머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군사를 일으켜 요녕성 신빈의 현도를 공격하여 그곳을 영토로 삼았다. 33년에 고구려는 남하하여 강원도 춘천에 웅거해 있었던 최씨(崔氏)¹¹⁾의 낙랑을 멸망시켰으며, 고구려의 남쪽 영토는 지금의 강원도 금강산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통해서 동명왕 주몽이 처음 고구려를 일으킨 곳은 요동 서안평(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서북쪽 지역) 부근의 졸본부여이며 고구려의 두 번째 국도인 국내성은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인주(麟州)라고 하였으며, 환도성에 대해서도 인주 부근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정약용의 고구려 초기 중심지 인식보다 서남쪽으로 인식한 것이다.

유형원은 고구려 초기 중심지를 중국 대륙 안에 존재한 것으로 보았던 한백겸과 정약용과는 달리 한반도 평안남도 성천을 고구려 초기 중심지로 설정하였다. 유형원에 의하면 고구려의 국내성과 환도성은 압록강 이북에 있었으며,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 이동경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 정약용과 한백겸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형원은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서 고구려 첫 번째 국도인 졸본은 요녕성 흥경(신빈)이며, 그 이후에 평안북도 강계 이북 지역으로 남하하여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성과 환도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정약용과 한백겸의 인식과 같다. 신경

11) 『삼국사기』에 의해 낙랑국 왕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최리를 말한다. (『三國史記』卷 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大武神王 十五年 夏四月, 王子好童 遊於沃沮 樂浪王崔理)

준은 『강계고』를 통해서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가 한반도 평안남도 성천에서 세워졌으며 국내성과 환도성은 각각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인주(麟州)와 압록강 동북쪽 부근으로 이해하여 유형원의 입장에 동의하였다. 이는 유형원과 마찬가지로 정약용의 고구려 초기 중심지 인식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중휘는 『동사(東史)』를 통하여 고구려가 처음 일어난 곳은 평남 성천이 아니라 요동부근이라고 하였고, 국내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환도성이 압록강 이북 지역이라고 하여 대체적으로 고구려 초기 중심지가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남하했다고 하였다. 한진서의 『해동역사속』, 김정호의 『대동지지』 「방여총지」, 박주종의 『동국통지』에서도 고구려 초기 중심지를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인식하여 정약용의 인식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아방강역고』에 의하면, 44년에 한나라 군사가 바다를 건너서 평안도와 강원도의 낙랑을 취해 다시 한군현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살수(薩水-청천강)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고구려가 영토로 삼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한나라 군현인 낙랑이 존재하고 있었다.

1세기경을 통틀어 고구려는 요수(遼水-요하)와 패수(溟水-대동강) 사이에서 남쪽을 내려다보았다고 하였다. 190년에는 요동태수 공손도에 의해서 낙랑 땅이 공손씨의 영토가 되었으며, 247년에 고구려가 낙랑으로부터 평안남도 평양을 빼앗아 그곳에 평양성을 증축하였다. 304년에 평안남도 평양은 고구려의 국토였으며, 313년에 낙랑은 고구려에 의해 완전 멸망하여 한반도 서북부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의 「사군총고」를 통해서 고구려가 평안남도 평양 지역을 얻은 시기를 중국 조위(曹魏) 시대인 3세기경이라고 했다. 정약용의 이러한 평양 인식과 비교해서 한백겸과 유형원, 신경준, 이중휘, 윤정기 등이 평양을 평안남도 평양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다. 단, 김정호가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여 『대동지지』 「방여총지」를 통해 다른 인식을 내세웠다. 김정호에 의하면 3세기, 4세기 초에 역사에 등장하는 고구려 평양은 평안남도 평양이 아닌 요동 양평(중국 요녕성 요양)으로 보며 이를 구평양(舊平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세기인 427년에 천도한 평양성이야말로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이라고 보고 이를 신평양(新平壤)이라고¹²⁾ 지칭했다. 정약용의 일관된 평양 인식과는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12) 『大東地志』 「方輿總志」 606면.

4세기 초인 고구려 고국원왕 때에는 백제군이 고구려의 평안남도 평양성을 공격하여 수도를 한강 이북으로 옮겼는데 이곳이 바로 한강 북쪽의 한성이며, 오늘날 서울 강북일대라는 것이다. 서울 일대를 고구려의 남쪽 수도, 즉 남평양(南平壤)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정약용은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남평양¹³⁾을 공취하고 백제 근초고왕이 한성을 수도로 삼았다는 기사를 전면 재해석한 것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고구려 남평양이라는 곳은 오늘날 한양(서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평안남도 평양성 동쪽과 남쪽에 성이 있었는데, 각각 동황성(東黃城)과 장안성(長安城)이었으며, 남평양은 ‘평양 남쪽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장안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고구려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공취당한 강역 한계선으로써 평양성 남쪽성인 장안성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달리 한백겸은 남평양을 서울 인근으로 이해하였으며, 신경준은 기원전 5년에 백제에서 한강 이북에 쌓았던¹⁴⁾ 성이 지금의 남평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종휘도 한강유역에 남평양이 위치한 것¹⁵⁾으로 보았다. 즉, 남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정약용이 평양성 남쪽 부근으로 이해한 것과 입장을 달리한 실학자들의 인식이다. 한편 한진서는 남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비정을 못하고 있지만 대략 서울에 있었다는 견해와 황해도 재령에 있었다는 견해를¹⁶⁾ 들고 있다. 한진서의 남평양 위치 견해는 정약용과 한백겸, 신경준, 이종휘의 단정적인 남평양 위치 견해보다는 더욱 절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75년에 한강이북의 백제의 국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이북을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으며, 한강 이남은 여전히 백제의 영토였다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는 주장하였다. 그 후 482년 무렵에 한성 즉 한강 이북은 다시 백제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4년의 말갈족 공격 기사를 근거로 한 정약용의 주장이다.

백제 동성왕, 무령왕 시대인 5~6세기를 거쳐서 한강 이북은 확고한 백제의 영토

13) 남평양의 위치에 대한 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날 서울이라는 것, 두 번째는 황해도 신원의 장수산성(長壽山城)이다.

14)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4년 7월조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漢城)의 백성들을 분거하게 했다는 기사(『三國史記』卷第二十三「百濟本紀」第一 溫祚王十四年秋七月築城漢江西北)가 있는데, 신경준은 이 한강 서북쪽의 성을 고구려의 남평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15) 『修山集』卷十二「東史志」高句麗地理志 550면.

16) 『海東釋史續』「地理考」六卷 高句麗 26면.

였으며, 무령왕 이후의 30여 년간에서야 고구려가 비로소 한강 이북 지역을 다시 되찾아 잠시 지배하였다고 하였다. 이 한강 하류 지역의 지배권은 삼국의 말기에는 뺏고 뺏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고구려가 실제로 이 지역을 장기간 지배한 시기는 30여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약용의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토 지배에 대한 견해¹⁷⁾이다. 결국 556년에 신라에 의해 한강 유역이 완전 영토화 되고, 고구려는 한강 이남 지역을 한 조각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고구려 영토 인식을 살펴보다도 『아방강역고』의 한강을 기준으로 한 이원적 역사체계를 엿볼 수 있는데 정약용은 철저하게 한강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한강 이남으로 진출한 적이 없으며, 한강 이남은 오로지 백제나 신라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진출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고구려의 한반도로의 영토 진출 한계선을 한강 이북까지로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한반도 중남부 지역 영토화에 대한 사실조차 생략시키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완전 영토화 한 시기는 중국 진(陳)나라 때부터이며, 6세기 중엽의 일이었다고 언급하여 다소 협소한 고구려 영토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약용의 고구려 영토 인식에 비해서 한백겸은 5세기경인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2대에 걸친 남진으로 인해 한반도 경상도 동북부 지역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하였으며, 고구려의 전체적인 영토는 서쪽으로는 요동, 동남쪽으로는 한반도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어 정약용의 고구려 영토 인식보다 더 넓게 보았다. 유형원은 고구려의 최대 남방 경역을 한강 이북 지역까지로 보고 있어서¹⁸⁾ 정약용의 입장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한강이북까지 고구려는 진출했지만 한강 이남은 백제의 확고한 영토였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유형원의 고구려의 전반적인 영토 인식은 정약용의 인식보다 더 광범위했다. 고구려의 최대 서북쪽 진출지역으로 요서까지 인식한 것이다.

17) 정약용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했을지라도, 사실상 한강 유역과 충청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식했다. 즉 이 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한 적이 없음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我邦疆域考』 九卷 「漢城考」 至蓋鹵王末年句麗燒城殺王而百濟南遷漢城爲百濟之舊京 中략 其後五十餘年漢城及漢北州郡猶爲百濟之物 中략 鏞案鞞來侵明是漢北況武寧王明徵漢北州郡使之築城則列水以北猶是百濟之物未嘗爲句麗有也 中략 鏞案句麗之得漢城雖無正文據金富軾地理志今京畿之漢南漢北及忠清道東北十餘邑皆云本句麗之某邑 中략 悉屬虛妄 中략 句麗實未嘗來都亦不能久保其文不足信也當以百濟史爲正)

18) 『東國輿地志』 「平安道」 平壤 499면.



〈도판 1〉 고구려도(張志淵, 1903, 『大韓疆域考』,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안정복은 고구려가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까지 이어진 기간에 서쪽으로 요동을 이미 영토화 하였으며, 요서까지 진출하였다고 인식해서 정약용의 고구려 요동 영토 인식 시기보다 500여 년 빠르게 설정하였다. 신경준에 의하면,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처음 일어나서, 중국 신나라(1세기 초엽) 때에는 북쪽은 부여(오늘날 중국 길림성 장춘시 농안 부근)와 인접하였으며, 중국 후한 초기에는 요동으로 군사적 진출을 했다고 인식했다. 신경준도 고구려의 군사적 진출 지역을 서쪽으로 요서까지 설정하고 있어서, 정약용의 협소한 영토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원과 안정복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중휘는 고구려 전성기 때의 영토를 동북쪽으로 연해주 일대, 서쪽으로는 요동, 요서 일대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시기 이후에는 동남쪽으로 조령과 죽령을 넘어 경상북도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인식해서 정약용과 유형원이 고구려의 최대 남방 경역을 한강 이북까지로 본 것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진서에 의하면, 1세기 초에 고구려가 요동까지 세력범위가 미쳤다고 보지만 이 시기에 요동이 고구려의 확고한 영토가 된 것이 아니라고¹⁹⁾ 하였다. 한진서에 의하면 6세기에서 7세기경까지 이르러 고구려의 전반적인 영토는 서쪽으로 요서지역까지 진출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²⁰⁾ 이는 정약용의 고구려 영토 인식보다 서쪽 경역 인식으로는 더 넓게 보았지만, 남쪽 최대 경역 인식은 똑같이 본 것이다. 이에 비해 박주종과 윤정기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의 고구려 최대 남방 진출이 충청도와 경상북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 정약용과 유형원, 한진서의 입장과 달리 하였다.

2. 고구려 영토인식의 문제점

정약용과 다른 실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고가 분석한 『아방강역고』의 고구려영토 인식에서 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평안남도 평양이며, 이곳을 247년에 낙랑으로부터 빼앗아 국도로 삼았다고 하였다. 3세기경부터 한반도의 평안남도 지역을 영토화 했다는 것이다. 장지연은 이에 대해서 고구려가 이미 1세기경에 살수(청천강) 이북을 영토로 삼기 시작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부연²¹⁾하고 있다. 동천왕, 고국원왕, 장수왕 때에 역사에 등장하는 평양성을 정약용은 모두 동일한 평안남도 평양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김정호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동천왕, 고국원왕 때까지의 평양은 중국 요녕성 요양이었으며, 장수왕 때의 평양이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이라는 평양이 두 곳이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고구려의 남평양에 대해서 정약용은 평안남도 평양의 남쪽 성인 장안성(長安城)을 지칭하고 있다. 평양과 관계된 지명이라면 정약용은 무조건 평안남도 평양과 연관시키고 있다. 반면에 정약용과는 달리 다른 실학자들은 대부분 남평양을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북 일대로 보고 있으며, 다만 한진서는 남평양이 서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해도 재령 쪽이 남평양이 아닌가하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19) 『海東釋史續』 「地理考」 六卷 高句麗 2면.

20) 『海東釋史續』 「地理考」 六卷 高句麗 3면.

21) 千寬宇, 1993, 『韋菴 張志淵의 思想과 活動』, 민음사, p. 285.

둘째, 고구려 남진(南進)의 최대 강역을 정약용은 한강 이북까지로 보았다. 이는 동시에 한반도 중남부 진출의 사실을 배제한 것과 상통한다. 하지만 한백겸, 안정복, 이종휘, 김정호, 박주중, 윤정기는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을 긍정하였고, 이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 진출과도 상통하는 주장이다. 정약용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한 학자는 신경준과 한진서 뿐이다. 결국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고구려의 남쪽 국경선을 한강유역과 한반도 중남부인 충청, 경상도 부근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정약용이 살던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지도 연혁도(沿革圖)²²⁾에서도 고구려 최대의 남쪽 강역을 한강유역은 물론,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표현해 내고 있다.

셋째, 정약용은 고구려의 요동정복을 6세기경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6세기 전까지의 고구려 영토에 요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형원, 신경준은 고구려가 요동을 넘어 요서까지 진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종휘는 고구려의 전성기인 5세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정복한데 이어 요서까지 진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호는 1세기에 요동은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었고 심지어 요서까지 진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국도인 구(舊)평양이 지금의 요녕성 요양이었다는 사실을 들면서, 고구려가 3세기경부터 요동지방을 영토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1) 평양의 위치

양태진은 247년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구축(構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평안남도 평양이 3세기 중기부터 고구려의 영토였다고²³⁾ 하였다. 이는 정약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삼국사기』 기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에 불과하다.

32년에 고구려는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과 춘천 일대를 아우르던 낙랑으로 처음 진출하였다. 그러나 10여년 후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고 평안남도와 강원도 일대는 다시 낙랑의 영토가 되었으며 낙랑체제는 4세기 초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3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낙랑이 청천강 북쪽의 고구려와 예성강 남쪽의 백제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평안남도 평양지역은 낙랑의 확고한 영토였다. 이는 평안남도 대동강 유역과 황

22)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지도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토를 표현하고 있다.

23) 梁泰鎮, 1991, 『韓國領土史研究』, 法經出版社. p. 131.

해도 재령 등에서 발굴된 중국식 토성(土城)과 고분²⁴⁾등을 통해서도 중국 군현이었던 낙랑이 융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게다가 32년경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낙랑으로 진출한 이후로 고구려의 점령 목표 지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요동이었다. 이는 369년에 고구려와 백제의 첫 군사적 충돌이 기록에 등장할 때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²⁵⁾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고구려 태조왕 때인 56년에 한반도의 함경남도 정복, 68년에 압록강 유역을 정복하였고²⁶⁾ 남쪽의 청천강의 평야일대를 장악한 고구려는 청천강 남쪽 낙랑군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 낙랑군을 지방군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중국 세력을 서쪽으로 밀어낼 필요성이 있었다.

고구려 남쪽의 낙랑군 지역은 204년에 중국 공손씨(公孫氏) 정권의 영향으로 대방이 낙랑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하였다. 238년에 고구려는 위와 연합하여 공손씨 정권을 협공하였으며,²⁷⁾ 공손씨 세력이 멸망한 후에 위나라와 정면대결을 하게 되었다. 244년에 위나라의 장군 관구검이 이끄는 1만 군사가 침략을 감행하였으나²⁸⁾ 결과는 고구려의 참패였으며, 245년 5월에 관구검의 위군(魏軍)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이때에 위나라 군대는 남쪽 낙랑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추격을 개시한 것²⁹⁾이었다. 만일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다면 동천왕은 남쪽 평안남도 부근으로 패주(敗走)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은 당시 낙랑의 영토였기 때문에 동천왕의 진로는 오히려 동북쪽일 수밖에 없었고, 동북쪽 퇴로 지역은 56년에 고구려가 이미 정복한 옥저 지역이었다.

위나라 군대로부터 수모를 당한 후에 동천왕은 당시의 압록강 이북에 있었던 고구려 국도 환도로 복귀했으며, 국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47년에 드디어 평양성을 쌓고 이곳에 종묘사직을 옮기게 되었다. 정약용은 동천왕 때에 천도한 국도를 평안남도 평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정황상 이 곳이 평안남도 평양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평안남도 평양이 아닌 환도성 근처인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추정하고³⁰⁾ 있다.

24) 강현숙 외 17인, 2010, 『한국 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pp. 164~170.

25)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p. 42.

26)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p. 257.

27) 서인환,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 85.

28) 1906년 중국 길림성 집안(集安)에서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되어 당시 중국 집안시가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터임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29) 서인환,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 87.

30)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p. 187.

장복유는 평양은 어느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평야지대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면서 압록강 일대에서 평야지대에 위치한 중국 집안시(集安市) 인근의 양민(良民) 지역을 동천왕 때의 평양성이라고 주장하기도³¹⁾ 한다. 동천왕이 평안남도 평양을 247년 낙랑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정약용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당시 고구려 동천왕은 위나라로부터 패주하였고, 고구려는 전시로 인한 위기상태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쪽의 낙랑은 건재했다. 당시의 상황의 전개가 이러한데, 동천왕이 압록강 이북의 환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적지(敵地)의 중심에 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 특유의 적석총이 대량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³²⁾과 250년 2월에 중천왕이 군사력 증강을 주도하도록 한 조치와 288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성(新城 :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조치³³⁾ 등은 고구려가 남쪽의 영토에 대해선 국가적 관심이 없었고 서쪽 중국 요동지방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약용은 동천왕 21년에 쌓았다는 평양성, 334년에 증축(增築)하였다는 평양성³⁴⁾, 343년에 고국원왕이 이거(移居)했다는 평양 동황성, 427년에 장수왕이 천도했다는 평양성을 모두 동일한 평안남도 평양으로 보고 있다. 동천왕 시대의 경우는 평안남도 평양이 중국군현인 낙랑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동천왕 때 쌓았다는 평양성은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이 아니라, 환도에서 멀지 않은 압록강 이북 지역이다. 313년에 이르러 평안남도 평양에 오랜 시간동안 웅거해 있었던 낙랑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한 334년에 등장하는 평양성도 동천왕 때 등장하는 평양성과 동일한 곳으로 보인다. 343년에 등장하는 평양 동황성에 대해서는 위치의 이설(異說)이 많지만 이 곳 역시 평안남도 평양은 아니다.

31) 張福有, 2005, 「高句麗의 平壤, 新城과 黃城」, 『고구려역사문제 연구논문집』 5, 고구려연구재단, pp. 205~215.

32)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p. 187.

33) 서인한,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p. 88~90.

3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4년 8월조에 보면 고국원왕이 평양성을 증축(增築)하였다고(『三國史記』 卷 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故國原王 四年 秋八月 增築平壤城) 했으며, 동왕(同王) 13년 7월조에 고국원왕이 평양 동황성(東黃城)에 이거했다고(十三年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언급하고 있다. 김부식은 이 동황성의 위치를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 동쪽의 목덕산 속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東黃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필자는 고국원왕 4년에 증축한 평양성 기사를 근거로 고국원왕 4년과 13년의 평양성을 동일한 곳으로 생각한다. 증축(增築)했다는 것은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성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천왕 21년에 새로 쌓았다는(동천왕 21년조 '築平壤城'에는 증축의 '增'자가 없다.) 평양성과 고국원왕 4년의 평양성과 고국원왕 13년의 평양 동황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보며, 그 위치는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본다.

신형식은 고국원왕 13년에 등장하는 평양성을 황해도 재령부근에서 발굴된 고구려 도시유적을 근거로 남평양으로³⁵⁾ 보고 있다. 연구자는 평양 동황성의 위치를 압록강 이북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국원왕의 선왕(先王)인 미천왕 때에 낙랑지역을 병합했지만, 이 지역을 완전 지배하기까지는 5세기 중엽의 광개토대왕 시대까지의 과도기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평양에서 발견된 중국식 전탑(塼塔)의 기년이 광개토대왕의 시대인 5세기경을 한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³⁶⁾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즉, 평안남도 평양을 국도로 삼기에 고국원왕 시대는 정황상 낙랑관련 토착 세력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방강역고』에서 설명한 303년에 평안남도 평양이 확고한 고구려의 국도였다는 정약용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303년은 고구려 미천왕 시대로 고구려가 중국과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주요 진격 방향은 남쪽이 아니라 대체로 서쪽이었다. 서쪽으로 진격하려면 고구려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국도가 중국 요동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해야 한다. 『아방강역고』의 303년 고구려 평양 국도인식은 평양을 평안남도 평양에만 국한시켜서 보려는 정약용의 시각으로써 고구려 평양인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평안남도 평양이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국도가 된 시기는 303년보다 훨씬 후대인 427년 때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남평양에 대해서 평안남도 평양 남쪽의 장안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남평양이 지금의 서울 강북 일대라고 보는 설(設)이나 황해도 재령으로 보는 설(設)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다. 남평양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 정약용이 장안성을 남평양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만 주목하려 한다.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이 고구려의 본격적인 국도가 된 것은 427년 장수왕 시대이다. 장수왕이 427년 옮긴 평양성이라는 곳은 오늘날 평안남도 평양시 동북쪽에 위치한 안학궁(安鶴宮)³⁷⁾이었다. 그리고 552년에 쌓기 시작하여 586년에 천도했다는 고구려 마지막 국도 장안성(長安城)은 오늘날의 평안남도 평양시이다. 안학궁은 장안성보다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안학궁의 북쪽으로는 대성산성(大聖山城)이 있어, 이 또한 427년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함께 쌓아진³⁸⁾ 것이다.

35)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p. 67

36)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pp. 191~192.

37) 김정배 외 5인,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p. 23.

『아방강역고』 「한성고」에 보면 정약용이 평양성에 대해서 언급한 문구³⁹⁾가 있다. 정약용은 이 평양성의 위치를 지금의 평양 시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평안도 지도(地圖)⁴⁰⁾상에서의 평양은 대동강 북쪽에 표시되어 있다. 정약용이 18세기 중엽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방강역고』를 저술할 때에 이 지도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지금의 평양 시내는 대성산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18세기 평안도 지도에서는 대성산 남쪽으로 평양이 표시되어 있지만, 동남쪽의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시대를 제작한 지도들은 대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리인식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평양 시내는 3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지어진 것이 아니라 6세기에 축성(築城)되어 마지막 국도가 된 장안성이기 때문에 정약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설사 평양성을 대성산성 남쪽의 안학궁터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안학궁터의 동쪽과 남쪽에는 각각 고방산성과 청호리 토성이 존재⁴¹⁾하고 있지만, 남쪽에 위치한 청호리 토성을 남평양이라고 칭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청호리 토성은 사방이 1.2km밖에 안 되는 작은 토성에 불과해 남경(南京)이라는 칭호를 붙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붉은 기와등이 발굴되어 고구려 왕궁 같은 건물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민중들의 주거 지역 유적은 전혀 발견⁴²⁾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학궁터의 동쪽과 남쪽의 산성과 토성은 어떠한 문헌에도 그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장안성을 끼고 흐르는 대동강 남쪽에 토성(土城)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은 낙랑과 관련이 있는 토성이다.⁴³⁾ 따라서 남평양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정약용은 평안남도 평양성의 구체적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관련 기사⁴⁴⁾에 대해서 정약용은 『아방강역고』

38) 김정배 외 5인,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p. 192.

39) 『我邦疆域考』 「漢城考」에 의하면 평양은 동쪽과 남쪽에 두 성이 있었는데(『我邦疆域考』 九卷 「漢城考」 平壤原有東南二城東曰東黃城南曰長安城古記之云南平壤謂平壤之南城也), 동황성(東黃城)과 장안성(長安城)이 두 성 각각의 명칭이며, 옛 기록의 남평양은 남쪽 성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40)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지도

41) 김정배 외 5인,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p. 192.

42) 김정배 외 5인,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p. 192.

43) 서인환,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 124.

44)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남평양에 관한 기사로써,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의 남평양을 취(取)하고 한성(漢城)에 도읍했다는 내용이다. (『我邦疆域考』 九卷 漢城考 取高句麗南平壤移都漢城 中략 當時偶陷其城遂云取之非眞據之爲京邑也)

를 통하여 백제가 고구려의 평안남도 평양의 남쪽성을 공략한 후에 한강 이북으로 옮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에는 남평양을 ‘취(取)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取)라는 단어는 ‘획득’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상통한다. 정약용의 표현에 의하면 평양성 남쪽성인 장안성을 백제가 공취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안성은 근초고왕 때보다 2세기 뒤인 고구려 양원왕 때부터 축성하기 시작했던 곳이며, 설사 백제가 점령했다면, 백제에 관련된 유적이 현대에 발견되어야 하는데, 고구려와 낙랑 관련 유적, 유물은 평양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백제 관련 유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도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인 것으로 그치고 퇴군했다고 기록되어⁴⁵⁾ 있다. 백제는 평양성을 공격만 했지, 취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근초고왕이 공취했다는 남평양은 4세기 당시에 백제가 확고하게 영토로 구축한 황해도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고구려 남방(南方) 강역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서 고구려의 최대 남방 한계선이 한강 이북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고구려가 한강 남쪽으로 진출한 적이 역사상 없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313년 이후, 중국 군현 세력인 낙랑을 멸망시켜 남쪽으로는 영토 확장 기반을 확보한 고구려는 369년의 치양(稚穰-예성강 서북쪽에 위치한 황해도 배천) 전투로 백제와의 역사상 최초의 영토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371년에는 고구려군과 백제군이 패하(溟河)⁴⁶⁾에서 전투를 벌여 백제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백제군은 승세(勝勢)를 타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하고 돌아왔다. 375년 가을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수곡성(황해도 신계)을 함락시켰다.⁴⁷⁾ 이것을 보면 4세기경에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 경계선은 예성강과 대동강 사이였을 것이다.

4세기경의 백제와 고구려의 황해도 중심의 국경선은 5세기 광개토대왕의 시기를

45)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 동(冬)조에 근초고왕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고구려 고국원왕이 역전(力戰)하여 막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죽으니 근초고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고 했다(『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近肖古王 二十六年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有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退軍 移都漢山)

46) 온조왕 때의 북쪽 경계선이었던 패하(溟河)와 동일한 곳이다.

47)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 추(秋) 7월조에 고구려가 백제의 수곡성을 침공해서 함락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近肖古王 三十年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기점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392년 7월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일대의 지역을 점령했으며 396년에는 백제를 재차 침공하여 58개의 성과 700여 개의 고을을 영토화 시켰다. 이때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아리수(阿利水-한강)를 건너 백제왕을 복종시켰는데,⁴⁸⁾ 이때에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처음으로 영토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396년은 역사상 최초로 고구려가 한강이북을 점령하고 한강을 건너 한강이남 까지 진출한 연도가 된다.

당시 고구려에 의해서 국가의 중심부인 한강유역 대부분을 빼앗긴 백제는 수복을 위하여 왜(倭)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의 밀고(密告)로 고구려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400년에 광개토대왕은 5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에 침입한 백제와 왜의 연합군을 격파하였으며, 승전 장소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이었다.⁴⁹⁾ 즉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은 한반도 남부까지 군사적 진출을 수행한 것이었다. 고구려가 한강이남 지역, 즉 한반도 중남부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영토로 삼았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한반도 중남부 소백산맥 서북쪽에 있는 고을들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기록⁵⁰⁾, 한강유역에서 경상북도 영덕까지 잇는 선이 고구려의 군사적 진출에 따른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기록이나 유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에서 고구려왕이 죽령은 본래 고구려 땅 이었다고 언급한 것이나, 『삼국사기』 「열전 온달」 편에서 온달이 출정하기 전에 “계립령과 죽령이 다시 고구려 땅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 충주에 남아있는 중원고구려비의 존재, 468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실직주(悉直州-강원도 삼척)를 공격하여 영토화한 사건⁵¹⁾,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던 충북 단양을 신라가 공취해서 빼앗았다는 내용을 담은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 21세기 이후 발견된 한강 이남의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계통의 석실분⁵²⁾ 5세기~6세기에 신라영토에 해당되는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에 산재해 있

48) 광개토대왕비문의 영락6년(서기 396년) 조에 나와 있는 광개토왕의 고구려군이 한강을 건넜다는 내용(永樂六年 丙申 王躬率水軍討百殘國 中략 殘不服義 中략 王威赫怒渡阿利水)이다.

49) 서인한,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 111.

50) 충청북도 괴산, 충주, 진천, 음성 등이 해당된다.

5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장수왕 56년조의 기사이다.(『三國史記』 卷 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長壽王 五十六年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52) 21세기 이후에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에서 고구려계통의 석실분이 발견되었고, 이들 석실분이 주로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써 백제 동성왕과 무령왕 시대와 겹치는 것을 보았을 때(윤대준, 2010, 「475-551년 한강 하류 유역 領有國 문제에 관한 考察」, 『정신문

는 고구려 관련 고분이나 불상, 벽화⁵³⁾ 등 고구려의 한반도 중남부 진출의 역사적 증거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와는 달리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한성 침공 이후에 5~6세기에 걸쳐서 백제 동성왕과 무령왕 시대에 한성과 한강이북의 민호를 징발했다는 기사⁵⁴⁾나 한강유역과 한반도 중남부에 남아있는 고구려 관련유적들이 모두 단기적인 시기에 속한 것이라 하여, 고구려의 장기지배를 재고(再考)하는 주장⁵⁵⁾들도 제기(提起)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단기적인 측면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한강 이남과 한반도 중남부로 진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정약용의 인식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3) 고구려 요동 점령 시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서 고구려가 요동을 영토화한 시기를 6세기경이라고 하였다. 이는 6세기 전까지의 고구려 영토를 축소시켜 본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며, 정약용의 삼국 영토 인식에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고구려가 요동을 영토화한 시기는 6세기경보다 훨씬 전인 1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49년에 고구려는 북평(北平)·어양(漁陽)·상곡(上谷)·태원(太原)을 공격하였는데,⁵⁶⁾ 이 지역은 오늘날 중국 북경(北京) 동북쪽, 요하 서쪽에 위치한 곳이다. 55년에는 요서 지역에 10성을 축성

화연구』 33-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 313)에 고구려입장에서는 이곳을 잠시 영토화 했다고 볼 수 있다.

53) 徐榮一, 1991,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30~48.

54)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4년 9월조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했다는 기사(『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동성왕 5년조에 동성왕이 직접 한산성에 사냥을 하러 나가면서 군민(軍民)들을 위로했다는 기사(東城王 五年 春 王以獵出至漢山城), 「백제본기」 무령왕 7년 10월조에 고구려의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과 공모하여 한성(漢城)을 치려하여 횡악 아래에 진둔하므로 무령왕이 군사를 내어 격퇴시켰다는 기사(武寧王 七年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靺鞨謀 欲攻漢城), 무령왕 23년 2월조에 무령왕이 한성에 직접 행차하여 한수 이북 주군의 백성 15세 이상을 징발했다는 기사(王幸漢城 命佐平因友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가 있다. 이에 대해 이병도(李丙燾)는 한강유역은 고구려가 점령한 시기였으므로, 이 모두 믿을 수 없는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李丙燾, 1996, 『國譯三國史記 下』, 을유문화사, p. 78. 주-28), 필자는 동성왕 5년조에 군민(軍民)을 위로했다는 기사에 단서를 얻어 한강유역이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뺏고 빼앗기는 격전지였고 일반백성들이 사는 생활지역이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어느 한쪽이 반영구적으로 영토화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장수왕에 의해 한강유역이 고구려 땅이 된 이후에도 백제 동성왕, 무령왕 대에 한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형국을 이루었고 이곳이 백제입장에서는 군사지역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55) 金榮官, 1998, 「三國爭霸期 阿旦城의 위치와 영유권」, 『고구려연구』 5, 고구려발해학회.

金榮官, 2006, 「고구려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한국고대학회.

5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모본왕 2년조에 나와 있는 요서지역 공략 기사이다.(『三國史記』 卷 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慕本王 二年 春 遣將襲漢北平·漁陽·上谷·太原)

하였는데⁵⁷⁾ 『삼국사기』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1세기 중반에 요서까지 진출한 점은 믿기 어려운 점이지만, 요서를 요동의 오기(誤記)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1세기에 고구려의 세력범위가 요동에까지 미쳤음을 인식할 수 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주변 소국들을 병합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요동지방을 두고 중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왕권과 경제적 기반의 강화로 이어지며, 국력신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서기 1세기 초부터 중국과 요동지역을 놓고 쟁패를 하게 된다. 즉 전술(前述)한 모본왕과 태조왕 때의 요서지역 관련 기사가 고구려와 중국의 경쟁관계와 연관된 것이다. 즉 당시 요서와 요동에 걸친 지역은 한나라의 공손씨 등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고구려는 이 땅을 공취하기 위하여 요동지역에 10개의 성을 쌓는 등, 중국세력과의 경쟁관계에 연관되기에 이른 것이다.

1세기 초에 잠시 고구려의 세력 하에 들어갔던 요동지방은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면(局面)은 바뀌게 되었다. 요동지방이 완전하게 고구려의 영토가 된 시기는 6세기경이 아니라 4세기 후반부터이다. 395년(고구려 광개토왕 5년), 광개토왕은 부산(富山 : 요하 하류 이서 지역)으로 대표되어지는 요서(遼西) 지역을 아울렀으며, 동쪽의 양평(오늘날 중국 요녕성 요양)을 경유⁵⁸⁾하였다. 부산과 양평 모두 요서와 요동에 위치한 주요 중심지들이다. 이는 고구려의 영토가 4세기 후반부터 요동에 미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402년에 고구려는 조양(朝陽 : 대릉하 서북쪽에 위치) 동북쪽의 숙군성(宿軍城)을 공격하였다.⁵⁹⁾ 436년에는 중국 북연(北燕)의 화룡성(和龍城)을 공격하여 점령⁶⁰⁾하였다. 이곳은 대릉하(大凌河)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고구려의 영토가 요하 서쪽을 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전성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요동은 이미 고구려의 확고한 영토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6세기 이후에 고구려가 요동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정약용의 인식은 비판 대상이 된다.

5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3년 2월조에 나와 있는 요서 지역 10성 축성 기사이다. (『三國史記』 卷 第十五 「高句麗本紀」 第三 太祖大王 三年 春二月 築遼西十城) 필자는 이 요서를 요동의 오기(誤記)로 보고 당시 고구려의 세력이 요서가 아닌 요동에까지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고구려의 요서 진출은 3세기에서 5세기까지에 해당되는 중국 서진말엽이나, 남북조 시대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58) 서인환,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p. 108~109.

59)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p. 265.

60) 梁泰鎮, 1991, 『韓國領土史研究』, 法經出版社, p. 126.

IV. 백제 · 신라 영토에 대한 인식

1. 백제 영토인식

백제의 영토 인식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한강 유역의 지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방강역고』에 의하면, 정약용이 언급한 백제의 영토 역사는 시조(始祖) 온조왕 때인 기원전 1세기 초에서 1세기경과 근초고왕 시대인 4세기 초, 개로왕 시대인 5세기 중엽, 동성왕과 무령왕, 성왕 시대인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엽까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백제의 국도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는 온조왕이 처음으로 도읍을 삼은 위례성은 한강 이북에 있었고, 낙랑과 말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기원전 6년에 천도한 곳이 한강 남쪽의 위례성이며, 이 지역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일대라고 비정하였다.

한백겸은 백제 최초 국도인 위례성을 충청남도 직산(稷山)으로 보고 있으며, 백제의 두 번째 국도인 한산성(漢山城 : 한성)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 부근의 남한산성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첫 국도의 위치를 한반도 충청남도 직산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날 서울 강북 일대로 백제의 국도를 비정했던 정약용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제의 국도 위치에 대해서 정약용의 입장에 동의한 학자는 신경준, 이종휘, 한진서, 김정호, 윤정기 등이며, 한백겸의 입장에 동의한 학자로는 안정복, 박주종 등이 있다. 정약용은 백제가 온조왕 때인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패하 즉 능성강(能成江)까지 북쪽 영토를 이루었으며, 지금의 황해도 동북쪽의 수안, 곡산까지 백제의 확고한 영토였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이 패하를 대동강 지류인 능성강으로 보았지만 한백겸을 포함한 다른 실학자들은 대부분 황해도 동남쪽의 평산 부근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 윤정기만이 『동환록(東寰錄)』을 통하여 패하의 위치가 대동강이라고 보면서 백제 온조왕 때의 북방 경역을 정약용의 인식보다 북쪽으로 더 설정하였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 9년에는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사실을 언급하면서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에 근거하여 원산(圓山), 금현(金峴)마저 항복시켜 마한을 완전 병합했다는데 긍정하고 있다.



〈도판 2〉 백제도(張志淵, 1903, 『大韓疆域考』,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정약용은 『아방강역고』 「마한고」를 통해서 금현이라는 곳을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羅州)라고 보고 있어서, 백제 온조왕 때에 전라도 지역 완전(完全) 병합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백겸, 안정복 등의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한진서는 정약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식한 온조왕의 마한 완전 병합설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완전 병합된 시기는 4세기 초의 일이라고 인식⁶¹⁾하였다.

백제 온조왕 때 북방한계선 패하의 위치에 대해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 대동강 지류인 능성강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 백제 온조왕 때 평안남도 남쪽까지 진출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백제 온조왕 때의 마한 병합 사실을 긍정하면서 백제의 세력이 금현(전라남도 나주)을 점령하였다고 하였다. 즉 백제 온조왕 때인 서기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초에 걸쳐서 백제의 영토가 북쪽으로

61) 『海東繹史續』 「地理考」 八卷 百濟 3면.

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춘천, 남쪽으로는 전라도 전역까지 지배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백겸은 백제 온조왕 때의 전라도 영토화는 인정하고 있으나, 북방 한계선은 평산 저탄으로 인식하여 정약용의 강역인식보다 축소시켰다. 유형원, 안정복, 이종휘, 윤정기 등도 마한병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안정복, 신경준, 김정호, 박주종은 한백겸의 평산 저탄설을 따르고 있다. 특히 김정호는 백제의 최대 북방 영토로 백제 근초고왕 때 개척한 황해도 신계를 들고 있다.

정약용의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윤정기뿐이며, 한진서는 백제 온조왕 때의 북방 한계선을 황해도 곡산지역으로 보아 정약용의 백제 영토 인식과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마한 지역 병합 부분에 있어서 백제 온조왕 때가 아닌 백제 근초고왕 때의 일이라고 하여 타 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즉, 백제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병합한 시기는 백제 온조왕 때가 아닌 서기 4세기 초의 일이라는 것이다. 백제 연혁도에서도 백제 온조왕 때의 북방 한계선은 평산 저탄이라고⁶²⁾ 하였다.

5세기 중엽, 개로왕 이후에 고구려의 침공으로 백제의 영토는 한강 남쪽으로 잠시 축소되었다가, 5세기 말엽인 동성왕 시대에 한강 이북을 되찾았고, 6세기에 걸친 무령왕 시대와 성왕 시대에 걸쳐서 완전히 한강 이북 지역을 확고한 영토로 확정했다⁶³⁾가 553년에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백제 영토 인식을 통해서 정약용이 전달하려는 것은 우선, 한강유역이 6세기 중엽에 신라에게 빼앗길 때까지 확고한 백제의 영토라는 것이며, 반대로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남부에 진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약용은 고구려 영토를 다소 협소하게 인식했지만, 이에 비해서 백제의 영토인식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식했다.

62) 삼국 연혁도(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에는 각각 삼국의 영토(국도 포함)변천에 대한 글씨가 찍어져 있는데, 백제 연혁도에는 ‘疆域曰北之泚河河即今之平山猪灘’이라고 하였고 백제의 영토는 서울일대와 충청도, 전라도가 그려져 있다. 여기서 특기(特記)할만한 점은 백제 온조의 첫 국도인 위례성이 지금의 서울 근교가 아닌 충남 직산(稷山)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당시 백제의 위례성을 충남 직산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63) 정약용은 백제 무령왕 이후에 고구려가 30여 년간 잠시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고 언급했다.(『我邦疆域考 九卷「漢城考」 武寧王既卒後三十餘年漢城之事不見史冊或者其間句麗暫得漢城旋復失之)

2. 신라 영토인식

신라에 대한 영토 고증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빈약한 편이다. 『아방강역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신라에 대한 영토 고찰 시기는 3세기말에서 4세기 초의 시기와 6세기 중엽의 한강유역 쟁취 시기뿐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삼한 중에서 가장 후진국에 속했던 진한의 신라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걸쳐서 한반도의 동북부인 비열홀(함경남도 안변)과 우두주(춘천) 지역을 지배⁶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약용의 신라 영토 고증은 상세하지 못하며 단편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게다가 삼한 중에서 서기 5세기까지 경제적·문명적 약소국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면서⁶⁵⁾,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혜택을 입어 삼한 중에서 국력이 가장 강했던 백제와 해운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입은 가야⁶⁶⁾와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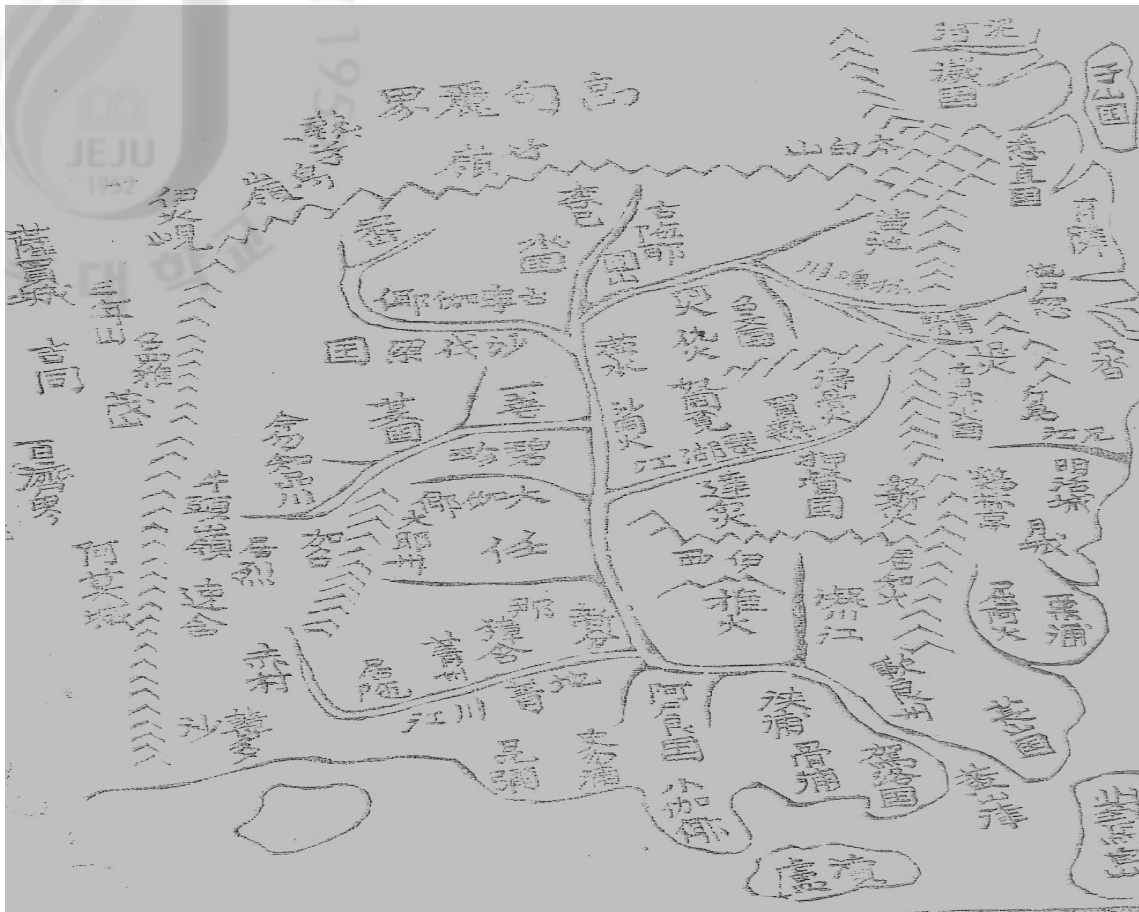
정약용은 신라를 후진국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한반도 동북부(안변)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라의 초기 시대의 영토 변천에 대한 순차적 언급이 없이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2세기 말에 영토를 동북쪽으로 크게 넓혔다는 비약적(飛躍的)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 건국시기부터 3세기 초까지의 영토확장사(領土擴張史)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방강역고』에서 배제되었다. 한백겸은 정약용과는 달리 신라의 영토 고증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는 경상도 동북부에 위치한 청하, 영덕, 청송, 영천, 봉화 등의 지역이 신라의 첫 영토였으며 경상도 서남쪽에까지 세력이 미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은 4세기 초에 우두주인 춘천까지 신라의 세력이 미쳤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백겸은 7세기 초에 신라가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해서 7세기경에 와서야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유형원과 안정복 등은 신라의 초기 영토를 경상도 전역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안정복에 의하면 신라는 6세기경에 와서야 동북쪽의 함경남도 덕원까지 영토를 개척했다고 하였다.

64) 다산이 신라에 대한 영토 고찰을 한 유일한 부분임과 동시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다. (『我邦疆域考』 二卷 「樂浪別考」 樂浪帶方服屬於新羅 新羅史云基臨王三年春巡幸比列忽至牛頭州望祭太白山樂浪帶方兩國歸服于新羅 鋪案前此新羅奈解王時百濟兵入牛頭州伊伐浪忠萱將兵拒 中략 春川已自蜀漢之時爲新羅之鄙至)

65) 『我邦疆域考』 四卷 「弁辰別考」 三韓之中新羅猶荒昧無文 中략 鋪案蕭齊之時新羅君長猶稱尼師今麻立干則無文可知也

66) 『我邦疆域考』 四卷 「弁辰別考」 朝聘中國或附庸於百濟 中략 迦羅直居海口習知舟楫之事新羅深居陸地但輸皮幣之供其勢不得不迦羅爲主而新羅附庸也



〈도판 3〉 신라도(張志淵, 1903, 『大韓疆域考』,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진서는 3세기에서 4세기경 사이에 들어서면서 함경남도 안변, 강원도 춘천 일대를 신라가 영토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신뢰하면서 정약용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정호 역시 222년에 백제군이 우두주(춘천)에 침공하여 신라군이 이를 요격한 기사, 300년에 비열홀(함경남도 안변)에 신라왕이 순행했던 기사를 신뢰하고 정약용과 한진서의 입장과 마주하고 있다.

박주중은 6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신라가 함경도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면서⁶⁷⁾ 정약용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정기는 4세기까지 신라가 한반도 동북부를 영토로 점령하고 있었지만 5세기경의 고구려 남진으로 인하여 상실했고 6세기에 다시 이 지역을 수복하였다고 역설⁶⁸⁾하면서 정약용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아방강역고』의 신라 영토 인식은 3~4세기경에 한반도 동북부 지역을 신라가

67) 『東國通志』 四卷 「地理考」 392면.

68) 『東寶錄』 「歷代」 78~79면.

영토로 삼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정약용은 6세기가 될 때까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한 나라를 신라로 보았다.

정치, 경제면에서 낙후하다면, 군사력 측면에서도 당연히 낙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체제의 법칙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낙후해 있었던 3~4세기에 신라가 한반도 동북부를 영토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 「낙랑별고」를 통해 222년과 300년에 낙랑과 대방과 관련된 사건을 실은 기사⁶⁹⁾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춘천과 안변 일대가 3세기경부터 신라의 영토였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1세기경에 고구려 대무신왕에 의해서 춘천 최리(崔理)의 낙랑이 정복당한 이후, 춘천은 더 이상 낙랑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신 춘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또 다른 낙랑의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이 세력이 300년에 기림왕이 춘천으로 순행 갔을 때에 갑자기 항복했다는 것이다.

다른 실학자들 중에서 정약용의 입장에 동의하는 학자는 한진서, 김정호, 윤정기이며, 이 주장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학자는 한백겸, 안정복, 신경준, 이종휘, 박주종 등이다. 후자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동북부로 진출한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처음 진출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 연혁도에서 신라 전성기 때의 영토인 경상도, 한강유역, 한반도 동북부, 함경남도 일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진흥왕 때에 안변, 함흥 일대로 진출했다고 설명⁷⁰⁾하고 있다. 단지 연혁도에서는 춘천 지역이 신라의 영토였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3. 백제 · 신라 영토인식의 문제점

(1) 백제 온조왕 시기의 영토

정약용은 기원전 5년경의 백제 영토인 북쪽 패하를 대동강 지류인 능성강(황해도 수안 북쪽)으로 추정하였으며, 9년경의 마한 병합을 수용하여 백제 영토가 1세기 초에 이미 전라도 전역까지 지배했다고 하였다. 즉 18년에 건국되어진 백제가 국가

69) 『我邦疆域考』 二卷 「樂浪別考」 樂浪帶方服屬於新羅 新羅史云基臨王三年春巡幸比列忽至牛頭州望祭太白山樂浪帶方兩國歸服于新羅 鏞案前此新羅柰解王時百濟兵入牛頭州伊伐浪忠壹將兵拒중략 春川已自蜀漢之時爲新羅之鄙至)

70) 신라 연혁도(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에서 살펴보면 ‘眞興王以今之安邊爲比列州 중략 咸興’ 이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진흥왕 때에 안변과 함흥 등지로 영토를 넓혔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창기인 이십여 년 만에 북쪽으로 평안남도 이남, 남쪽으로는 전라도 전역을 석권한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반도의 3/1을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백제의 북쪽 영토 경계선인 패하(溟河)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술했듯이, 정약용과 다른 실학자들 간의 이견(異見)이 많다. 특히 조선후기의 연혁도(71)에서는 정약용의 의견과 달리 황해도 평산 저탄으로 보고 있는데 패하의 위치에 대해서는 평산 저탄설, 능성강설, 대동강설, 예성강설(72) 등 다양하다.

기원전 1세기 말엽부터 1세기 초에 걸쳐서 백제의 북쪽 강역을 능성강이라고 보았을 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낙랑과 말갈(靺鞨)의 존재에 있다. 우선 기원전 17년에 온조왕은 북쪽 국경선에 말갈이 인접하고 있으며, 말갈은 매우 용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군신에게 지시하고 있다.(73) 말갈의 군사력이 상당히 강해서 건국 되어진지 2년밖에 안된 백제로서는 이들을 방어해 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기원전 11년에는 말갈 삼천여 명이 백제의 국도 위례성을 침공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74) 이를 보더라도, 말갈이라는 존재가 백제의 국도 위례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당시의 온조왕의 국도 위례성을 오늘날 서울 강북일대로 비정했을 때에 강북의 북쪽에서 멀지 않은 내륙일대에 말갈이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말갈에게 국도의 포위를 허락한 상황이라면, 백제의 북쪽 경계선이 넓지 않았다는 것과 백제의 군사력이나 방어력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다.

기원전 10년에 백제는 낙랑과의 영토 문제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데, 동년(同年) 7월에 온조왕은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瓶山柵)을 쌓아서 북쪽 경계를 완고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를 감지한 낙랑의 태수(太守)가 낙랑에 대한 백제의 위협으로 생각하여 마수성과 병산책을 헐어버릴 것을 요구하지만, 백제의 온조왕은 낙랑 측에서 낙랑의 강한 군사력을 믿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백제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회답을 하고 있는 것(75)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수성이라는 곳과 온조왕의

71)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지도

72) 이병도가 주장한 인식이다. 이병도는 북쪽으로 예성강, 동쪽으로 춘천, 남쪽으로 공주까지 닿았던 영토가 온조왕 때의 사실이 아닌 서기 3세기에 백제가 군소 국가들을 통합하여 통일 고대 국가로 출범하던 고이왕 때의 영토라고 설명하고 있다.(李丙燾, 1996, 『國譯三國史記 下』, 을유문화사, p. 14, 주-18)

73)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년 정월조의 기사이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二年 春正月 王謂群臣曰 靺鞨連我北境 其人勇而多詐 宜繕兵積穀爲拒守之計)

74)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8년 2월조의 기사이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八年 春二月 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

75)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8년 7월조의 낙랑과 백제간의 영토분쟁 관련 기사이다.

회답 부분이다.

마수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현재까지도 알 수가 없지만, 본고에서는 마수성의 한자 훈을 풀이하여 그 위치를 추정해서 ‘마(馬)’를 마한(馬韓)의 앞글자로 보아 ‘마한’의 뜻으로 생각하며, 머리 부분을 뜻하는 수(首)를 ‘북쪽 부분’으로 풀이하여 마한의 맨 북쪽 부분으로써 지금의 서울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 사료(史料)되었다. 그리고 온조왕이 낙랑의 강한 군사력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낙랑이 백제보다 전투력 측면에서 훨씬 강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말갈과 마찬가지로 낙랑도 백제의 북쪽 국경 부근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북 북쪽 일대인 마한의 끝자락에 백제가 마수성을 쌓아 반발했던 것이다. 게다가 군사력이 백제보다 강했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 백제와 영토분쟁을 빚었던 낙랑은 33년에 고구려 대무신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춘천 지역의 낙랑으로 생각되는데, 중국과 관련된 군현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일찍 접할 수 있었으며, 당시 평안도와 강원도 일대에 웅거하고 있었다. 한편 백제는 마한으로부터 파생된 군소국가에 불과했으며, 정약용의 주장대로 한반도의 1/3의 영토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사실로 주입시키기에는 실제 백제 온조왕 때의 국력은 낙랑과 말갈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쪽 국경선도 정약용의 인식처럼 낙랑과 말갈이 존재했던 지역의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는 황해도 수안 일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국가가 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하며, 강한 군사력을 구비하려면 강력한 왕권을 구심점으로 결집된 통일 정치체제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제가 강역을 북쪽 패하로써 확장했다는 기원전 5년에 백제의 정치상황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모양이다. 동년 2월에 국도에 노파(老婆)가 변해서 남자가 되는 사건과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국도 안에 습격했다는 사건⁷⁶⁾이 그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매우 불길한 징조로 보았으며, 이는 현대사회에도 적용되어지는 일이다. 『삼국사기』의 전체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천재지변과 기이한 일들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三國史記』 「百濟本紀」 八年 秋七月 築馬首城 堅瓶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 聘問結好 意同一家 今逼我疆 造立城柵 或者其有蠶食之謀乎 若不舊好 城破柵 則無所猜疑 苟或不然 請一戰以決勝負 王報曰 設險守國 古今常道 中략 若執事恃強出師 則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 與樂浪失和)

76)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2월조에 실려 있는 기사이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濫祚王 十三年 春二月 王都老嫗化爲男 五虎入城)

인 혼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⁷⁷⁾이다. 따라서 노파가 남자로 변하고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국도를 공격했다는 기사는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혼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국도를 공격했다는 것은 백제가 아직 정치적인 통합이 되지 못한 군소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백제 주변에 존재했던 다른 세력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력이 미약했던 상황인 동년 5월에 온조왕은 동북쪽에 낙랑과 말갈 등이 백제의 영토를 자주 침공하여 이를 방어하기가 힘겨워서 한강 남쪽으로 국도를 옮겨야겠다고 공언(公言)하였고, 다음해인 기원전 4년에 한강 남쪽으로 국도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 백제의 첫 번째 국도인 서울 강북 일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북쪽에 낙랑과 말갈이 웅거했으며, 기원전 5년에 획정했다는 북쪽의 국경선 폐하는 능성강이 될 수가 없다.

당시 백제는 황해도 수안까지 영토를 넓히기에는 통일 정치 체제가 구축되지 못해서 오히려 불안한 정국이었으며, 낙랑과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여 군사력도 그다지 강하지 못하였다. 기원전 1년에는 국도를 한강 이남으로 천도한 후, 한강 이북의 위례성이 낙랑의 공격으로 불타게 되었지만 백제의 대응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⁷⁸⁾. 이와 같이 낙랑과 말갈은 백제의 동북쪽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백제보다 군사력도 월등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감히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

폐하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371년의 『삼국사기』 기록이다. 369년에 고구려 고국원왕이 치양(황해도 배천)에 주둔하여 백제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된다. 황해도 배천은 예성강의 서쪽인 황해도 남쪽 부근이다. 그렇다면, 4세기 까지에도 백제의 북쪽 영토는 황해도 남쪽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4세기경까지도 중국 군현인 낙랑과 대방이 확고하게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이북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2년 후인 371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재차 침공하였는데, 근초고왕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폐하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켜 고구려군을 습격하여 격파시켰다.

369년에 치양에서 백제군이 고구려의 군대를 격파시켰지만, 치양 일대를 점령했

77) 姜輝國, 1983, 『6世紀에 있어서 新羅의 漢江流域 經略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9.

朴仲煥, 1992, 「馬韓勢力的 變遷過程에 對한 一考察」,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34.

78)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7년 춘(春)조에 실려 있는 기사이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十七年 春 樂浪來侵 焚慰禮城)

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황해도 남쪽 지역으로 백제가 진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⁷⁹⁾ 따라서 371년 근초고왕이 매복하여 고구려군을 격퇴시킨 패하강변은 황해도 남쪽에 위치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황해도 남쪽의 강이라면 황해도 평산 부근 혹은 예성강 등이며 당시의 패하가 황해도 북쪽의 능성강이 아니라라는 점은 확실하다. 백제가 황해도 북쪽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371년 겨울에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통솔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사건⁸⁰⁾부터이다.

양태진은 9년경에 백제가 원산과 금현 2성을 빼앗고 마한을 완전 병합한 일과 16년에 마한 출신의 장군인 주근(周勤)이 우곡성(牛谷城)에서 웅거한 사실을 근거로 백제의 남쪽 영토가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 진주까지 아울렀다고 주장하고⁸¹⁾ 있으며, 정약용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다.

마한이 멸망하기 3년 전인 6년(에 온조왕이 웅천(공주) 부근에 목책(木柵)을 쌓았는데 마한왕은 이를 도발로 이해하였다. 마한왕은 예전에 온조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며 정착할 곳이 없기에 마한에서 동북쪽 100리(里)의 땅을 떼어 안거하게 해주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국가 간의 의리를 어긴 행동으로 치부하고 웅천 목책을 헐어버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온조왕은 부끄럽게 여기고 목책을 헐었다고 했는데, 마한왕의 반응을 보더라도, 백제는 마한이라는 거대한 연맹체의 동북쪽에 위치한 군소국가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보다 10년 전인 기원전 5년에 북쪽으로 패하, 동쪽으로 주양, 남쪽으로 웅천에 이르는 100리의 땅을 하사(下賜)받아 마한 왕에게 획정보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온조왕 때는 백제가 자력(自力)으로 영토를 넓힐만한 국력을 지닌 통일 고대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토를 획정하고 마한 왕에게 보고한 사실과 웅천에 목책을 설치하려다가 마한왕의 반발로 인해 헐어버린 일 등을 든다면 백제는 마한에 포함된 수많은 군소 부족국가 중의 하나였고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마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군소국가에 불과했으며, 북쪽의 낙랑과 말갈의 위협에 시달려 국도를 옮기고 정국의 불안을 경험했으며, 남쪽의 맹주(盟主) 마한에 의해 목책을 헐어버릴

79)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 9월조 기사를 보면 고구려군이 치양에 주둔하여 침공을 준비하였는데, 백제 근초고왕의 태자 근구수가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5000 명을 사로잡고 그 노획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만 되어있으며, 이 일대를 점령했다는 언급은 없다.(『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80) 안주섭 외 2인,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출판사, p. 43.

81) 梁泰鎮, 1991, 『韓國領土史研究』, 法經出版社. pp. 152~153.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 백제가 불과 3년 만에 마한을 쳐서 멸망시키고 전라도 일대까지 광대한 영토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3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백제는 마한에 소속된 작은 군소국가에 불과하였다. 이는 서기 3세기의 중국의 실존인물이었던 진수(陳壽 233~297)가 저술한 『삼국지(三國志)』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한(韓)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라는 국명은 마한에 소속된 50여 개의 군소국가 중에 8번째로 나오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⁸²⁾하였다. 3세기경의 중국사가(史家)가 인식한 한반도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보다 훨씬 전엔 1세기 초에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고 전라도를 아우르는 영토 제국을 구축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도 영산강 유역에서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는 용관묘와 분구묘 등 고분무덤의 존재를 근거로 4세기 근초고왕 때까지도 전라도 전역의 영토 확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주장도⁸³⁾ 있다.

기원전 1세기 말경부터 2세기 사이의 백제는 북쪽의 낙랑, 말갈과 남쪽의 마한의 사이에 완충지대로 존재한 국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중국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이민(遺移民)들이 백제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원래 기름진 한강유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었던 백제는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 생산성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 경제력 신장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제력 신장은 곧 왕권 강화와 이를 구심점으로 뭉치게 되는 정치체제의 통합, 강력한 군사력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자력으로 영토를 넓힐만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기원전 5년에 백제 온조왕이 확장했다는 영토는 고이왕 때 들어와서야 가능한 일이며, 고이왕 이후의 발전된 국가체제의 구심점 아래 활발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근초고왕 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후에야 마한 병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산강 유역의 고분 유적을 통해 5~6세기 무렵에 독자적인 마한 잔존 세력의 존재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을 보더라도 온조왕 때의 전라도 전역을 영토로 삼았다는

82) 金起燮, 2005, 「백제의 강역 확장과 충청지역」, 『忠北史學』 15, 충북대학교 사학회 pp. 63~64.

83) 金起燮, 2005, 「백제의 강역 확장과 충청지역」, 『忠北史學』 15, 충북대학교 사학회, pp. 74~75.

金起燮, 2009, 「고고학 자료로 본 초기 백제의 성장」, 『한국사시민강좌』 44, 일조각, pp. 55~60.

강현숙 외 17인,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p. 315.

『삼국사기』 신빙론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 3~4세기 신라의 한반도 동북부 영토지배

정약용은 5세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남진(南進)이전까지 신라가 3~4세기에 걸쳐서 한반도의 동북부 지역인 춘천, 안변을 영토로 삼고 있었다고 하였다. 정약용의 인식대로라면 신라는 3~4세기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함경남도 이남을 아우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고대국가가 영토를 넓히고 이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이고 강한 군사력의 전제가 되는 것은 고대 영토국가라고 불리는 통합 정치체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3~4세기의 신라는 진한(辰韓) 연맹체에 소속된 군소국가에 불과⁸⁴⁾했으며, 정치체제가 왕에 의해 통합되기 시작한 시기를 4세기 말인 신라 내물왕 때로 보고 있다.

3세기 말까지도 신라의 주변에는 여러 소국(小國)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내물 마립간 시대인 4세기 말엽 전까지의 신라 국왕의 영향력은 일반 주민들에 미치지 못했다. 즉, 왕이 직접 주민을 통치하는 제민지배(濟民支配) 체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족장을 통해 그 휘하의 주민들을 지휘하게 하는 간접적 지배 체제였기 때문⁸⁵⁾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 영토 확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주민 동원을 왕이 자기 의지로 주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3세기에서 4세기 중엽까지의 신라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강원도 춘천을 넘어서 함경남도 안변까지 신라가 진출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약용의 신라 영토 인식의 최대 문제점은 신라 초기의 영토 변천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고구려, 백제의 국도 고찰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라의 국도는 변함없는 경주였기 때문에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영향으로 신라가 삼한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신라의 정치체제가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던 3세기~4세기에 한반도 동북부를 영토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비약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라는 102년에 음즙벌국(音汁伐國-경상북도 안강)을 정복하여 경북 영일만 일대로의 동진(東進)을 감행했다. 그 후 157년에 조령과 죽령을 개로(開路)하여 서북쪽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되었다. 그 후, 185년에 소문국(召文國-경상북도 의성)을 정

84) 金起燮, 2005, 「백제의 강역 확장과 충청지역」, 『忠北史學』 15, 충북대학교 사학회, p. 63.

85) 서인환,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p. 252.

복하여 경상북도 중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3년 뒤인 188년에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와 영토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 후부터 188년부터 199년까지의 10년의 기간 동안 신라는 충청도와 경상북도 서북부 일대에서 백제와 치열한 영토전쟁을 수행했다. 이는 곧 신라가 경상북도 중북부 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와 대립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209년에 경상남도 중부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수행하였다. 231년에는 경상북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감문국(甘文國-경상북도 김천)을 정복하여 경상북도 중부뿐만 아니라 서부마저 영토로 삼게 되었다. 236년에는 경상북도 중남부에 위치했고 신라 국도인 경주와도 가까워 위협이 되었던 골벌국(骨伐國-경상북도 영천)을 정복하였다. 신라에서는 골벌국을 영토화한 기세를 타서 지금의 대구(大邱)를 261년에 확보⁸⁶⁾하여 이곳에 달벌성(達伐城)을 쌓아 경상북도 전역을 통합시키기에 이르렀다. 신라는 102년에 경주 일대, 157년에 경북 문경과 경북 영주로의 진출로를 개통하였고, 185년부터 261년까지 대부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대에 한해 군사적 진출을 수행하고 있다.

아달라 이사금 때 조령과 죽령으로의 길을 열었지만,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후에 경상북도 내륙의 소국들을 정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신라가 이 시기에 북쪽의 강원도 춘천과 함경남도 안변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건상 신라 주변의 수많은 진한 연맹국가들이 난립해 있어서 춘천, 안변은 물론 이들 주변 소국들을 통합시켜 통합정치체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4세기 후반인 내물 마립간 시대에 이르러서는 낙동강과 경상북도 일대에만 영토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222년 10월에 백제가 우두주(춘천)로 침공했다는 기사, 300년 2월에 기림 이사금이 비열홀(안변)에 순행했다는 기사, 동년(同年) 3월에 우두주(춘천)에 이르러 백두산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항복했다는 기사, 481년인 소지 마립간 3년 2월에 비열성(안변)에 소지왕이 행차했다는 기사로 정약용은 3~4세기 신라의 한반도 동북부 지배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일대에서는 맥국(狛國)에 관련한 전설이나 지명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낙랑과 연관성이 깊은 철기나 화폐, 고분 등이 남아 있을 뿐, 신라와 관련된 유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⁸⁷⁾이다. 물론 강원도 강릉과 동해 일대에 신라 관련 고분이

86) 崔炳云, 1992, 「新羅 上古의 領土 變遷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128.

분포⁸⁸⁾되어 있긴 하지만 서북쪽에 위치한 춘천이나 안변까지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범위 안에 있다.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당시에 한반도 중부 지방에는 낙랑, 대방, 말갈의 세력이 있었다. 낙랑은 평안도, 황해도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춘천까지 아우르고 있었으며, 말갈도 경기도 동부(東部), 강원도와 동해안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세기 낙랑과 말갈의 세력은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위협할 정도의 대등한 군사력을 지녔으며, 자주 백제와 신라의 북변(北邊)을 침공하였다. 더욱이 낙랑은 4세기 초에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건재하고 있었으며, 말갈의 경우에는 203년에 신라의 국경을 침공하였다. 이 말갈 침략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갈 침공 기사의 다음 기록을 보면 도리(桃李) 나무에 꽃이 피고 주민들이 유행병에 걸렸다는 기사⁸⁹⁾가 나오고 있다.

기록에 등장하는 천재지변이 당시의 국가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성격을 감안할 때에 말갈과의 전쟁이 패전(敗戰)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세기인 신라 내해 이사금 때에도 신라 북쪽에는 말갈이 건재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이 말갈과 싸워 이기기에는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가 내해 이사금 때 낙랑과 말갈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춘천을 영토로 삼거나, 기림 이사금 때에 함경남도 안변으로 행차하거나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항복했다는 기사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낙랑과 대방은 당시의 중국 군현으로써 신라보다 월등한 선진 문물을 지니고 있었던 선진세력이었는데 3세기까지도 진한에 소속된 군소국가에 불과했던 신라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과장된 기록이다. 항복이 아니라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현실적인 정황으로 고찰했을 때 맞을 것이다. 당시 경상북도 전역 통합 사업에 집중하고 있던 신라로서는 서쪽의 백제라는 나라의 존재가 상당한 장애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제 북쪽에 있던 낙랑과 대방과의 우호관계를 맺어 백제를 견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림 이사금 때의 낙랑과 대방의 복속 기사는 동맹 관계를 다졌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며, 5세기 소지 마립간 때의 안변 지배도 잘못된 기사이다. 이 당시에

87) 金容伯, 2010, 「春川 狛國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97, p. 205.

88) 강현숙 외 17인,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p. 354.

8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해 이사금 8년 10월조에 나와 있는 기사이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奈解 尼師今 八年 冬十月 鞞鞫犯境 桃李華 人大疫)

는 고구려 장수왕 시대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가 이미 한반도 경상북도 북변(北邊)까지 미치게 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3~4세기에 신라가 한반도 동북부 영토를 지배했다는 주장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아방강역고』를 통하여 정약용의 삼국 영토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삼국의 영토 인식에 다소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약용의 평양인식에 대한 문제점이다. 정약용은 3세기경부터 고구려가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을 영토로 구축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4세기경에는 평안남도 평양을 국도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4세기경 초까지 평안남도 평양에는 중국 군현인 낙랑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평안남도 평양을 영토화한 시기는 4세기경 이후이며, 국도로 삼은 시기는 5세기경 때의 일이다. 고구려의 남평양에 대해서도 정약용은 평안남도 평양의 장안성이라고 했지만, 장안성은 고구려의 남평양이 아니라 6세기경에 새로 축성되고 국도가 된 고구려의 마지막 국도이다. 정약용은 평안남도 평양성 동쪽과 남쪽에 성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에 남아있는 성곽유적을 살펴보면, 정약용의 평양인식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약용의 남평양에 대한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둘째, 정약용은 고구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4~5세기에 걸쳐서 고구려는 분명히 한강 이남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였으며, 한반도 중남부를 정복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문헌기록이나 각종 유적, 유물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고구려의 요동 정복 시기에 대해서 정약용은 6세기경에 와서야 가능했다고 인식했으나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미 고구려는 1세기에 요동까지 군사적 진출을 감행했으며, 널리 알려진 사실대로 4~5세기에 요동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정약용은 기원전 1세기말에서 1세기 초까지의 백제 영토를 북쪽으로 황해도 이북의 능성강(能成江)에 이르렀고, 남쪽으로 전라도 전역을 석권한 영토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당시 백제는 마한에 소속된 군소국에 불과했으며, 낙랑과 말갈의 침공과 마한의 협박에 대응책만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이었던 때문이다. 게다가 전라도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세력의 존재를 암시하는 고분의 존재도 백제 온조왕 때의 전라도 지배 인식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고 황해도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넓힌 것은 국가체

제가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적 진출이 가능했던 4세기 초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신라가 한반도 동북부로 진출한 시기는 6세기경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보다 훨씬 전인 3~4세기에 이미 신라가 한반도 동북부를 영토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 당연히 잘못된 인식이며 『삼국사기』 신라 초기 기록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신라가 자력(自力)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영토를 넓힐 수 있을만한 국가체제로 거듭나기 시작한 시기는 4세기 말 이후부터였다. 게다가 4세기 초까지 신라의 북쪽에는 낙랑과 말갈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라의 주요 군사적 목적은 경상북도 일대의 진한 연맹체 소국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 지역의 완전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북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의 연구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본고의 주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아방강역고』의 삼국 영토 인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아방강역고』에서 고찰해 내고 있는 삼국 영토 역사의 시대기한이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에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6세기 중엽까지로 한정된 것에 맞추어 기원전 1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삼국 영토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셋째,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여타(餘他) 고대 제국의 영토 인식에 대해서는 부수적(附隨的)으로 언급하거나 생략하였다. 넷째, 본고의 연구방향은 주로 『아방강역고』의 삼국영토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범위 안에서만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사 료>

『我邦疆域考』

『久菴遺稿-東國地理誌』

『東史綱目』

『東國輿地志』

『旅菴全書』

『修山集』

『海東釋史續』

『大東地志』

『東國通志』

『東寔錄』

『三國史記』

<논 문>

姜輝國, 1983, 「6世紀에 있어서 新羅의 漢江流域 經略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 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起燮, 2005, 「백제의 강역 확장과 충청지역」, 『忠北史學』 15, 충북대학교 사학회.
_____, 2009, 「고고학 자료로 본 초기 백제의 성장」, 『한국사시민강좌』 44, 일조각.

金榮官, 1998, 「三國爭霸期 阿朶城의 위치와 영유권」, 『고구려연구』 5, 고구려발해 학회.

_____, 2006, 「고구려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한국고대학회.

박시형, 1989, 「다산 정약용의 역사관」, 『다산 정약용 :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과학원 철학연구소.

- 朴仲煥, 1992, 「馬韓勢力的 變遷過程에 對한 一考察」,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徐榮一, 1991,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윤대준, 2010, 「475-551년 한강 하류 유역 領有國 문제에 관한 考察」, 『정신문화연구』 33-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李明兒, 1996, 「丁若鏞의 我邦疆域考」,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張福有, 2005, 「高句麗의 平壤, 新城과 黃城」, 『고구려역사문제 연구논문집』 5, 고구려연구재단.
- 趙誠乙, 1992,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_____, 2000, 「丁若鏞의 歷史 理論과 展開와 그 性格」, 『國史館論叢』 93, 國史編纂委員會.
- _____, 2008,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13, 다산학술문화재단.
- _____, 2009, 「정약용의 백제사 연구」, 『한국사시민강좌』 44, 일조각.
- 趙二玉, 2002, 「茶山 丁若鏞의 渤海史認識」, 『東洋古典研究』 17, 동양고전학회.

<논저>

- 姜錫珉, 2006, 「18世紀 朝鮮의 領土論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강현숙 외 17인,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 金容伯, 2010, 「春川 貊國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정배 외 5인,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출판사.
- 서인한, 2005, 『한국고대군사전략』,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 안주섭 외 2인,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출판사.
- 梁泰鎮, 1981, 『韓國의 國境研究』, 同和出版公社.
- _____, 1991, 『韓國領土史研究』, 法經出版社.
- 千寬宇, 1993, 『韋菴 張志淵의 思想과 活動』, 민음사.

- 崔炳云, 1992, 「新羅 上古의 領土 變遷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韓永愚, 1985,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 『丁茶山研究의 現況』, 민음사.
- _____, 1989, 「19세기 초 丁若鏞의 歷史觀과 對外觀」,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기 타>

- 이태호, 1998, 『韓國의 옛 地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ABSTRACT

A Study on territories of the three ancient
Korean countries of the Jeong Yak Yong
-Focusing on the Abang_Gangyeok_Go-

Nam-Uk Kang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un Kim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misconceptions or fallacies in Abang_Gangyeok_Go(= the book dealing with the territorial matters of three ancient countries, Ko-Gu-Ryeo, Baek-Je and Shin-Ra in Korean history, which was written by a scholar, Jeong Yak Yong near the end of Lee-Jo Dynas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the other studies made by some scholar in the past is that this one is to review and criticize the distorted territorial accounts of three ancient countries which were treated in indirect way by the author and have not been widely known in full detail. The great problems in the author's recognition of the territory of Ko-Gu-Ryeo are as follows.

First, where Pyeong_yang, its capital, was situated is the greatest question at issue. Jeong considered that the Pyeong-Yang area of present time had

been firmly under the domination of Ko-Gu-Ryeo from about the 3rd century and that it had been designated as the capital of Ko-Gu-Ryeo from the 4th century. However, until the early 4th century, Nak-Rang which was one of Chinese colony states had firmly existed in this region.

Therefore, it was after the 5th century that Ko-Gu-Ryeo took the Pyeong-Yang area and certainly made the territory of it. In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south Pyeong-Yang area, Jeong commented that the location of the south Pyeong-Yang area was around Jang_An_Seong Castle in the southern part of Pyeong-Yang. However, the truth is that southern Pyeong-Yang area was not in Pyeong-Yang area belonging to Pyeong-An-Nam -Do but around Jae-Ryeong area in Whang-Hae-Do.

Second, Jeong mentioned that Ko-Gu-Ryeo had never advanced its military force into the south of Han River. But his comment was irrelevant, because Ko-Gu-Ryeo had surely made inroad into the south of Han River and conquered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from the 4th through the 5th century.

Third, in regard to the period in which Ko-Gu-Ryeo had conquered Yo-Dong region in Manchuria, Jeong considered that the conquest had not been possible until the 6th century. However, it is apparent that the country extended its influence into Yo-Dong area in the 1st century and had the firm domination of it through the 4th and 5th centuries.

According to Jeong's consideration of the territory of Baek-Je, the country had already expanded its territory to Neung-Seong River, a branch stream of Dae-Dong River to the north and to Jeon-Ra-Do region to the south through the late 1st and the early 2nd centuries.

At that time, however, Baek-Je was one of the small countries which belonged to Ma-Han. The power of the country was so weak that it had little choice but to plan the unpracticable measures which had never been taken in reality to defend itself or but to submit tamely to the aggression from Nak-Rang, Mal-Gal or Ma-Han itself. It was after the 4th century that

the country really dominated the Jeon-Ra-Do regionl. Therefore, Jeong's consideration of the territory or Baek-Je early in its era stretched the truth.

With respect to his recognition of the territory of Shin-Ra, he stated that the country had dominated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as its territory through the 3rd to the 4th century.

However, his recognition resuled from failure to notice the information recorded in Sam-Guk-Sa-Gi, the history of ancient three Korean countris. As Nak-Rang and Mal-Gal exercised their influence over the territory to the north of Shin-Ra until the early 4th century, Shin-Ra was able to advance its military force in the late 4th century. Before the early 4th century, the chief aim of Shin-Ra to use its military power was to conquer Jin-Han Federation around its territory, and so the country could not afford to move its military force to the north to Ham-Gyeong-Nam-Do or Kang-Won_Do. Therefore, Jeong's recognition of Shin-Ra territory is also the subject of critical examination.